타 학교 학생까지 가담, 화순 여중생 집단 폭행

학교측 한달 지나서야 늑장대응 '물의'

전담경찰은 폭력 사실 조차 파악 못해

화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선도부 여학생을 집단 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만류하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를 수차례 방문했지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학교 학생까지 가세해 여학생 집단폭행=화순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달 11일 점심시간에 이 학교 3층에서 학생복장 지도를 하던 3학년 선도부 A양을 2학년 남학생 5명이 집단 폭행했다. 이 중에는 인근 중학교 2학년 B군이 끼어 있었다.

이날 폭행은 B군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학교로 넘어와 A양에게 시비를 걸면서 비롯됐고, 이 학교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집단 폭행으로 번졌다.

당시 폭행 현장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만류하는 학생은 없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소리 지르며 부추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에서 대낮에 학교폭력이 벌어졌음에도 학교 측은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선도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적극 가담학생 4명은 외부 특별교육을, 동조하거나 부추긴 학생 10명은 교내 봉사활동을 결정했지만 "안이한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해주도록 배려했는데 늑장 대처해 딸 아이가 말 못할 2차, 3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과정과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늦어졌다"고 밝혔다.

◇생색내기성 예방 활동 걷어치워야=화순 중학교 학교폭력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학교폭력을 '4대악(惡)'으로 규정, 척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추진해온 각종 캠페인·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공연 등 겉치레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한 뒤 경찰서별 범죄예방교육, 학부모간담회, 캠페인, 예방공연 등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벤트식 활동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건이 발생한 화순지역 중학교의 경우 지난달 범죄예방교육·캠페인 등이 잇따라 열렸고 이 때문에 경찰도 일주일마다 학교를 찾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학교폭력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무늬' 뿐인 학교폭력전담경찰(스쿨폴리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광주의 경우 21명, 전남은 40명이 한 명당 20~30개교 학교를 맡아 학교 폭력을 전담토록 하는 실정에서는 학교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불가능한 만큼 더이상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 얼굴도 모르는 잘 모르는 경찰관이 가끔 학교에 찾아와 둘러보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

기가 나오는 것이다.

CCTV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설치에만 매달려 예방이 아닌, 사후 범죄 확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거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순 한 골프장서 60대女 숨진채 발견

화순의 한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6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화순읍의 한 골프장에서 김모(여·67)씨가 연못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골프장 잡초제거와 잔디 메우기 등을 위해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1년 전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을 해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출근 후 점심시간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수심 1.5m의 연못에 들어간 뒤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원참 〈8816〉 김종두

구속된 전 비서실장에 봉급 준 곡성군

1년간 3100만원 지급

곡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군수의 전 비서실장에게 1년 동안 봉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곡성군 등에 따르면 곡성군수 전 비서실장 안모(45)씨는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별정 6급 공무원인 안씨는 1심(2012년 7월)에서 징역 6년이, 2심(2013년 2월)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공무원 직위가 자동으로 박탈됐다.

그러나 곡성군은 안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5월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1년 동안 총 3100여만원에 달하는 봉급을 매달 꼬박꼬박 지급했다. 안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비서실장'으로서 '혈세'를 받은 셈이 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여수시 공무원 횡령 사건은 주범 김모씨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나도 징계위원회에 파면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 이렇게 씻어요"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14일 광주시청 야외문화광장에서 열린 광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최 '어린이 안전급식 한마당' 행사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손씻기 체험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원 해결' 돈 받은 일간지 대표 구속

광주지검은 14일 민원 해결을 돕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지방일간지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인의 민원 처리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혐의 등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운전기사 야간·시간외 수당 추가로 받는다

광주지법, 금호고속 수당 산정 위법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수당이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에 의해 책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기사들은 야간·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거리(㎞) 기준 수당 산정을 관행으로 여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4일 김모(52)씨 등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시간에 따라 80만~1700만원씩 원고들에게 모두 2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사는 입금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 단위 방식이 아닌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 48.14원의 수당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간 등 법정 근로시간 외 운행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용돈은 내가 벌어 쓰마"

자식 만류에도 폐지 줍던 할머니 뺑소니 차에 치여 숨져

자식들의 만류에도 '소일거리'라며 폐지를 주으러 나섰던 70대 노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모(여·73)씨는 13일 오후 8시께 폐지를 주으러 복개상가 쪽으로 가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평소 4명의 자녀가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될 만큼의 생활비를 주는데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양동시장을 찾아 폐지와 고물을 수집해 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사고 당일에도 광주에서 사는 큰아들의 만류에도 "내가 용돈 벌이 삼아 하는 일이니 너무 염려 마라"며 길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의 막내 아들(40)은 "어머니가 하고 싶어해 차마 말리지 못했다"며 "강제로라도 말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광주서부경찰은 14일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양동 복개도로 인근 양유교 앞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길을 건너던 김씨를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왜 남편과 친해" 뺨 때린 아내

쌍나팔

○…회사 여성 동료와 차를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상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주부가 경찰서 행

○…14일 광주서부경찰은 전날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A(여·33)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긁은 B(여·43)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10년 차 회사 동료로 함께 골프를 치고 평소 차도 같이 마시는 사이로,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쓴웃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보면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 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뿜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다라한의원 공종협 원장 김동건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푹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CJ 헬로비전 hello tv

헬로tv 가입 하시면 LG LED TV 반값!

42형 LG전자 LG LED TV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990,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가)

23형 LG전자 LG LED TV 모니터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정가 2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주1)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주2)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3,088,800원	2,431,440원	13%↓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1,176,120원	788,040원	26%↓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427,680원	364,320원	6%↓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332,640원	253,440원	16%↓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